



## 미 증시, PPI 쇼크, 소비 지표 부진 등으로 약세

### 미국 증시 리뷰

14 일(목) 미국 증시는 2 월 PPI 쇼크, 2 월 소매판매 둔화, WTI 80 달러 돌파 등 매크로 상 부담 요인이 상존한 가운데, 애플(+1.1%), MS(+2.4%) vs 엔비디아(-3.2%), 테슬라(-4.1%) 등 대형 테크주간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보이면서 소폭 하락한 채로 마감(다우 -0.4%, S&P500 -0.3%, 나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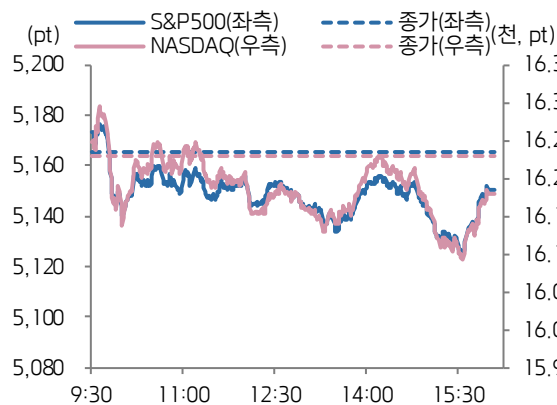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에너지(+1.1%), 커뮤니케이션(+0.6%)을 제외한 부동산(-1.6%), 유틸리티(-0.8%), 필수소비재(-0.8%), 금융(-0.7%) 등 대부분 업종이 약세. 엔비디아(-3.3%), AMD(-4.0%), 슈퍼마이크로(-4.9%) 등 AI 주들은 차익실현 압력 지속되며 약세.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어도비(-0.5%)는 1 분기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부진한 실적 가이드를 제시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10%대 내외 주가 급락 중.

미국의 2 월 헤드라인 생산자물가(PPI)는 1.6%(YoY)로 전월(1.0%) 및 컨센(1.1%)을 상회하는 쇼크를 기록 근원 생산자물가도 2.0%(YoY)로 전월(2.0%)과 동일하였으나, 컨센(1.9%)을 상회하는 등 지난 2 월 소비자물가(CPI)에 이어 잇따른 인플레이션 쇼크가 출현한 상황.

미국의 2 월 소매판매는 0.6%(MoM)로 전월(-1.1%)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컨센(0.8%)에는 미달. 근원 소매판매 역시 0.3%(MoM)로 전월(-0.8%)에 비해 개선됐으나, 컨센(0.5%)을 하회. 주요 외신에서는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 에너지가격 상승 등이 소비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 반면,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0.9 만건으로 전주(21.0 만건) 및 컨센(21.8 만건)을 모두 하회하면서, 실물 소비에 비해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함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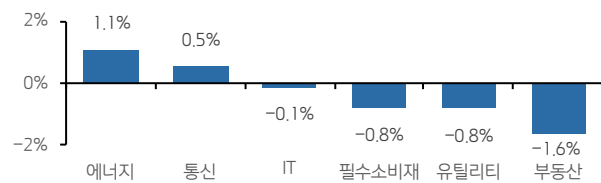
국민연금인 기자설명회를 통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찬성한다면서 아직 구체화된 부분이 밝혀지지 않는 않았으나 국민연금의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판단될 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 그와 동시에 단순 명료한 의사결정 및 투자 다변화를 위해서 기존 포트폴리오를 도입하겠다고 밝힘(기존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고려해 주식이나 채권 등 단순한 자산군 조합의 저비용 포트폴리오를 의미).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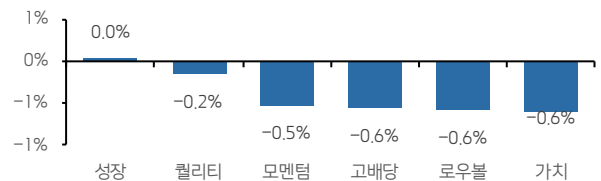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718.76	+0.94%	USD/KRW	1,317.80	+0.27%
코스피 200	366.68	+1%	달러 지수	103.35	+0.55%
코스닥	887.52	-0.27%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477.00	-0.12%	USD/CNH	7.20	-0.02%
S&P500	5,150.48	-0.29%	USD/JPY	148.26	-0.05%
NASDAQ	16,128.53	-0.3%	채권시장		
다우	38,905.66	-0.35%	국고채 3년	3.267	+2.2bp
VIX	14.40	+4.73%	국고채 10년	3.355	+2.8bp
러셀 2000	2,031.18	-1.96%	미국 국채 2년	4.694	+5.9bp
필라. 반도체	4,783.65	-1.75%	미국 국채 10년	4.290	+10bp
다우 운송	15,607.71	-1.34%	미국 국채 30년	4.434	+9.4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93.12	-0.15%	WTI	81.07	-0.23%
MSCI 전세계 지수	772.65	-0.34%	브렌트유	85.42	+1.65%
MSCI DM 지수	3,382.48	-0.4%	금	2166	-0.07%
MSCI EM 지수	1,048.68	+0.21%	은	24.87	-0.34%
MSCI 한국 ETF	67.05	-0.06%	구리	403.7	-0.3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6%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51%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45%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22.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4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월 PPI 쇼크 및 국채금리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 전망 후퇴 2. 엔비디아 비롯한 AI 관련주, 중소형주 조정 등 위험선호심리 위축 3. 외국인의 저 PBR 주 순매수 지속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월 PPI 컨센서스 상회, 소매판매 부진 조합에 금리 인하 전망 후퇴, 국채금리 4.3% 근접 여파로 밸류 부담 존재했던 AI 관련주 및 중소형주 타격이 제일 컸음. 그러나 애플, 알파벳, 아마존이 반등하며 낙폭은 제한되었고 단기 금등에 따른 과열 해소 과정이라고 판단. CPI, PPI 연속 쇼크에도 FedWatch 상 6월 금리인하 전망에는 큰 변화 없음.

2월 PPI YOY 1.6%(예상 1.2%, 전월 0.9%), MOM 0.6%(예상 0.3%, 전월 0.3%)으로 두 달 연속 컨센서스를 상회. 최종 수요 에너지부문이 MOM 전월 -1.1% → 4.4%로 상승하며 70% 기여. 추가로 상품물가 -0.1% → 1.2%, 운송 및 창고 서비스 물가 -0.2% → 0.9%로 확대된 점 역시 우려 요인으로 작용. 대부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한 운임비 상승에 기인. 운임비의 경우 BDI 기준 연초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21년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컨테이너선 운임은 3월 이후 하락세 보이며 항로 우회로 인한 운임비 과열 해소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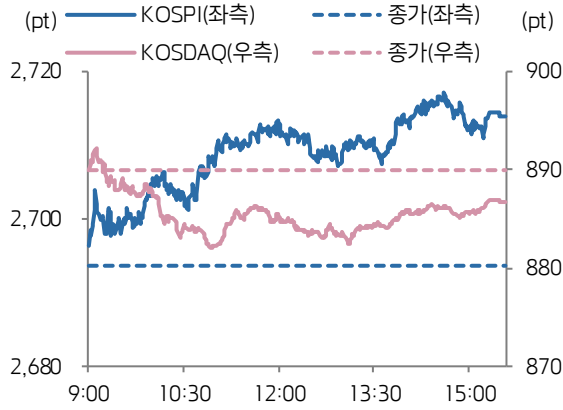
또한 최근 유가 상승은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IEA 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를 기존 하루 120만 배럴에서 130만 배럴로 상향한 것에 기인. 이는 작년 230만 배럴 수준을 여전히 하회하는 수준이지만, 유가는 작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81달러 돌파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가 3월 CPI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3월 FOMC까지 조정이 이어질 수 있음. 3월 FOMC에서는 2월 물가 지표들로 인해 점도표에서 올해 3회 금리인하 전망이 후퇴하는지 여부가 중요.

14일(목) 국내증시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장 초반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금융위의 기업밸류업 지원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공개 이후 외국인 순매수 전환, 6,700억원 가까이 유입되며 코스피는 2,710pt 안착 (KOSPI +0.94%, KOSDAQ -0.27%). 금일에는 국채금리 상승영향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유가 상승 및 미증시 에너지 업종 강세로 경기민감주 등으로 차별화 예상.

코스피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추정치는 연초 이후 하락하다가 2월 말 기점으로 재상승(연초 260조원 vs 현재 264조원, 23년 대비 51%). 선행 PER은 2월 이후 10.8배 수준으로 유지되며 하단 상승. 최근 불거진 CPI 재상승 우려, 6월 금리인하 불확실성, AI 관련주 조정에도 국내 증시는 밸류업 관련 뉴스 플로우에 따라 자동차, 은행, 증권 등 저 PBR 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미국과 차별화 지속. 한국전력, 삼성중공업, 두산에너지빌리티 등 경기민감 대형주까지 매수세가 확산. 이에 따라 수익률 역시 월 초반 코스닥이 코스피를 상회했으나 어제 기준 코스피가 코스닥을 상회. 다음주 FOMC 전후로 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더라도 2,600선에서 지수 하단은 지켜질 것이라는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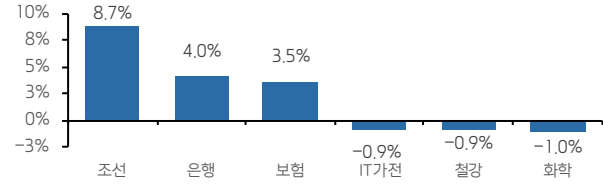
간담회에서는 스템워드십 코드 개정 및 코리아밸류업 지수 개발 논의 진행. 1차 세미나 당시 미흡했던 스템워드십 코드 개정 부문을 보완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통해 저 PBR 주 랠리가 총선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는 중이라고 판단. 스템워드십 코드의 경우,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원칙에 '중장기적 가치 제고 위한 전략 수립·시행(현황 진단 → 계획 수립 → 이행 및 평가)' 내용 추가. 스템워드십 코드 역시 2014년 이후 회사법 개정, 거버넌스 코드 도입 등을 추진해온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크 하여 향후 보완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소액주주 권리 보장, 사업전략, 리스크, 지배구조 등 비재무 정보의 투명성, 독립 사외이사 확보 등의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음. 일본 거버넌스 코드의 경우 "Comply or Explain" 원칙에 따라 원칙을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 설명을 요구하고 시정하도록 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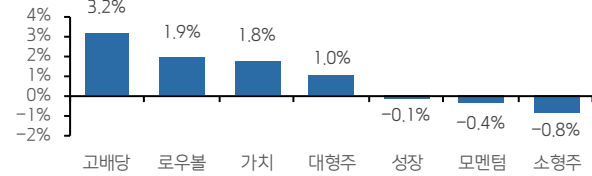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승,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